

## ‘곳곳 잡음’ 광주·전남 민주당-무소속 대결구도 ‘꿈틀’

‘낙마위기’ 장성·무안군수·광주서구청장 등 현직 거취 주목...무소속 출마 검토

‘유력’ 목포시장 예비후보 제명 반발...무소속 현직 단체장도 민주와 ‘한판승부’

여권의 뒷발인 광주·전남지역에서 현직 기초단체장 등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공천배제되거나 낙마 위기에 처하면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간 대결구도가 곳곳에서 예상되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인 이 지역에서 무소속 돌풍이 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전남 6·1지방선거 후보자 심사를 통해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산 무안군수 등 현직 군수 2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윤리심판원(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범죄경력, 성비위,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관련된 예비후보자들이 공천 배제

됐다고 밝혔다.

김산 무안군수는 중앙당에 공천 배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선거캠프 내에서 참모들과 진로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그동안 다져온 조직력과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탄탄하다는 점에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추행 가해 혐의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 역시 무소속 출마가

가능성이 점쳐진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근까지 김종식 현 시장을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는 박 예비후보는 제명 결정에 즉각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강수를 두고 있어 무소속 출마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광주시당 공관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서 청장은 이날 중앙당 재심위원회 심사가 예정됐으나 15일로 연기됐다.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 여부가 관심사다.

서 청장은 “중앙당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20년도 훨씬 지난 음주운전과, 금고형 이상이라는 기준에 맞지 않고 충분히 소명 가능한 변호사법 위반 벌금형을 벌미로 경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이와함께 무소속으로, 현역 단체장이 버티고 있는 장흥군수와 고흥군수 선거는 현직 프레임에 조직력과 지역내 입지를 다져온 만큼 민주당 후보와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장흥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지역정가가 시끌시끌해 무소속 현역 입장에서 나쁘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나고 있는 이들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연대와 함께, 돌풍을 일으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가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후보간 대결구도였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민주당과 무소속간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 창문 파괴 후 물 보수** 13일 오후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열린 소방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리 현장에서 강동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소방차의 물 보수를 위해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파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광주·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만 명대 ‘진정세’

광주·전남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만 명대를 유지하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 모양새다.

13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광주 7408명, 전남 8447명 등 총 1만5855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 광주와 전남에서는 5일(2만 1542명)과 10일(8429명)을 제외하고 줄곧 1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 수가 집계되고 있다.

7일 1만5990명, 8일 1만4924명, 9일 1만3137명, 10일 8429명, 11일 1만5748명 등 대체로 1만명대 초~중반 선을 유지해 대체로 진정

국면을 맞은 모양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정신건강시설 등지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전남 23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12일 광주 지역 발생 확진자 수의 3.1%를 차지했다.

연령대 별로는 0세~20대가 2794명으로 39.4%가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도 1468명으로 20.1%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환자 7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465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도 22개 모든 시·군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순천 1564명, 여수 1138명, 목

포 975명, 광양 721명, 나주 663명, 무안 490명, 고흥 353명, 영광 286명, 해남 271명, 화순 269명, 완도 217명, 영암 203명, 장성 192명, 담양 167명, 장흥 140명, 보성 134명, 진도 125명, 함평 117명, 강진 112명, 신안 109명, 구례 106명, 곡성 95명 등이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1568명이 감염돼 전남 신규 확진자 가운데 18.6%를 차지했다. 요양병원에서는 2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3.1%를 기록했다.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수가 2571명으로 전체 연령 중 30.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모임 자제,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최이슬기자

## 잇단 변이 출몰·백신 효과 감소...60세 이상 전면 4차 접종

**유행 감소에도 고령층 비중은 늘어 3차 접종 이후 시간 지나 효과 감소**

당국이 코로나19 신종 변이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고령층의 4차 접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3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 접종 시행 계획을 밝혔다.

60세 이상의 4차 접종은 당일접종의 경우 14일부터, 사전예약은 18일부터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내 입원·입소·종사자를 대상으로만 4차 접종을 한정적으로 시행해왔는데,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며 “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사망 예방과 오미크론 유행 지속,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4차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령층은 코로나19의 대표적인 고위험군이다. 누적 확진자 261만명 중 1만8805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의 평균 코로나19 치명률이 0.13%인데

반해 80대 이상 치명률은 2.66%에 달하고 70대 0.65%, 60대 0.15% 등 평균을 상회한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은 89.2%이지만 지난해 하반기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예방효과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

당국은 4차 접종 효과 증명이 됐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4차 접종 4주 후 중화항체의 값은 3차 접종 4개월 후보다 18배 이상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